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설 성수품 수급안정 방안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계획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지역 음주, 흡연 등 건강관리 실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경영체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설 성수품 수급안정 방안

※ 본 자료는 2013년 1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설 농수산물 수급여건

○ 떡·제수용·선물용(16개 품목) 중심으로 수요 증가 예상

- ※ 제수용: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명태, 고등어, 밤, 대추
- ※ 떡·탕국·선물: 쌀, 배추, 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오징어

○ 축·수산물 공급은 여유가 있으나, 채소·과일은 다소 애로

- [쌀] 전제수급은 안정수준이나, 신곡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높은 가격 형성**
- [채소] 기상악화에 따른 생육부진 등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
 - ※ 겨울배추: (평년) 348천 톤 → ('12) 335 → ('13,p) 286(전년대비 14.7%↓)
 - ※ 월 동 무: (평년) 223천 톤 → ('12) 291 → ('13,p) 270(전년대비 7.2%↓)
- [과일] 사과는 **충분하나, 배는**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부족**
 - ※ 사과: (평년) 456천 톤 → ('11) 380 → ('12) 395(전년대비 3.9%↑)
 - ※ 배 : (평년) 398천 톤 → ('11) 290 → ('12) 173(전년대비 40.3%↓)
- [축산물] 구제역 종료 후 소·돼지 사육마리 수 증가로 **공급여력 증대**
- [수산물] 재고량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많아 **공급은 충분**
- [임산물] 밤은 수확기 태풍 등으로 **생산량 감소, 대추는 증가**
 - ※ 밤 : ('10) 69천 톤 → ('11) 65 → ('12) 53(전년대비 18.0%↓)
 - ※ 대추: ('10) 9.4천 톤 → ('11) 8.5 → ('12) 11.6(전년대비 36.0%↑)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방안

○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 명절 수요가 많은 **16개 품목(중점관리품목)**을 **집중관리**
 - ※ (농산물, 5품목) 쌀·사과·배·배추·무, (축산물, 4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수산물, 5품목) 명태·고등어·오징어·조기·갈치, (임산물, 2품목) 밤·대추

- 농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기관·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운영
- '13. 1. 21 ~ 2. 8일(설 전 3주간) 운영

○ 성수품 공급확대

- **16개 중점관리 품목 공급량을 평시대비 1.5배 확대**
※ (평시) 11,600톤/1일 → (기간 중) 17,363(149.7%)
- 비축물량 등을 **설 직전 2주간 집중 방출**
- **[쌀]** 1월 중 '09~'12년산 정부쌀(211천 톤)을 떡쌀용 등으로 공급
- **[채소]** aT비축 물량(3천 톤)을 소매시장 중심으로 방출
- **[과일]** 계약재배 물량(재고: 사과 26천 톤, 배 31)을 집중 출하
- **[축산물]**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 공급 확대
-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과 연계, 민간 보유량 출하확대 유도
- **[임산물]** 산림조합 재고량(밤 300톤, 대추 80)의 40%를 기간 중 출하

○ 직거래·특판 및 비축물량 할인공급

- 농·수협 특판코너, 바로마켓 등을 활용하여 대책기간 중 **성수품을 10~30% 할인판매**(총 2,591개소)
- 비축물량은 대형 유통업체·전통시장 등을 통해 **할인판매**
※ (쌀) '09~'11년산 정부쌀을 떡쌀용 등으로 할인, (배추) 60% 할인, (수산물) 권장판매가격을 지정과 최대 50% 할인, (임산물) 최대 5~20% 할인

○ 수급불안 품목 수요분산

- 다양한 선물세트를 공급, 불안품목 구매 집중현상 완화
- 농수산물·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임신, 대기업 등에 구매 추천

○ 합리적 소비정보 제공 및 부정유통 감시

- 품목별 최적구매시기, 매장별 성수품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
※ 16개 성수품의 최적구매 시기 분석결과 공개
- 산지표시 위반 단속 및 위생 감시 강화

주요 농정 이슈_2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계획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4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 자금 5,000억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개요

- **[목적]**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을 통한 농어촌 정주욕 고취와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신축 50백만 원/동, 부분개량 25백만 원/동(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계획

○ 농어촌주택개량 지원물량 확대·공급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5,000억 원으로 '12년(4,000억 원) 대비 **25% 증액**
- **지원물량**도 '12년 8,000동에서 **10,000동으로 확대**
※ 지원물량(동): ('08) 6,000동 → ('09) 7,000 → ('10) 8,000 → ('13) 10,000

○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국가가 주택개량자금 재원 마련

※ 재원조성: ('12)국고 80% + 지방비 20% → ('13)국고 100%

○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 설계비 절감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표준설계도(87종)를 적극 활용
- 주택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 당 지원 상한액을 확대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 **201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4% 성장** (전년 동분기 대비 2.0% 성장)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민간소비가 늘어났으나, 수출 및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환, 설비투자는 감소세 지속
 - (민간소비) 준내구재, 통신서비스 등이 늘어나 0.8% 증가
 - (설비투자)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줄어들어 2.8% 감소
 - (건설투자)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1.3% 감소
 - (수출) 일반기계, 선박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1.2%, 1.1% 감소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건설업이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은 증가, 제조업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
 - (농림어업) 축산업 증가로 5.7% 증가
 - (제조업) 반도체, 휴대폰 등이 늘었으나, 일반기계, 운송장비가 줄어들어 전분기와 같은 수준
 -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부진하여 0.7% 감소
 - (서비스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 운수·보관, 부동산 및 임대 등이 증가하면서 0.5% 성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0.1% 증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2005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구 분	2011p					2011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DP)	3.6	1.3	0.8	0.8	0.3	2.0	0.9	0.3	0.1	0.4
	(4.2)	(3.5)	(3.6)		(3.3)	(2.8)	(2.3)	(1.5)		(1.5)
농림어업	-2.0	-3.0	4.5	-5.2	8.2	-1.0	-5.6	2.0	-4.1	5.7
제조업	7.2	3.3	1.2	1.1	-0.3	2.2	2.0	-0.2	-0.4	0.0
전기가스수도업	2.9	0.1	0.7	0.5	4.2	2.9	-3.9	1.3	0.5	8.9
건설업	-4.6	-4.3	1.8	2.8	-0.2	-1.3	-1.7	-2.7	2.8	-0.7
서비스업 ¹⁾	2.6	1.0	0.3	0.4	0.7	2.4	1.1	0.5	0.1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	4.6	1.4	1.0	0.1	1.3	2.2	0.0	0.6	0.4	0.7
(운수 및 보관)	3.8	1.6	0.4	0.2	0.6	1.4	1.1	-0.5	-0.3	0.7
(부동산 및 임대)	2.2	3.3	-0.4	-0.3	-1.0	0.2	1.4	-0.3	-0.2	0.1
(보건 및 사회복지)	4.6	2.3	1.1	0.4	1.0	6.6	4.6	0.9	0.4	-0.8
(교육서비스)	0.2	0.4	-0.7	-0.3	-0.3	0.7	2.3	-0.6	-1.1	-0.2
국내총소득 (GDI)	1.3	-0.1	0.5	0.6	0.6	2.3	0.2	0.9	1.1	0.1
	(2.0)	(0.7)	(1.1)		(1.5)	(1.9)	(2.2)	(2.8)		(2.2)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2)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12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0% 성장**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수출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진 가운데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제조업이 내수 및 수출 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
- **[실질 국내총소득(GDI)]** 교역조건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줄어들면서(65.8조 원 → 64.5조 원) GDP성장률을 상회

<지출항목별 및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p	2012p
국내총생산(GDP)	5.1	2.3	0.3	6.3	3.6	2.0
민 간 소 비	5.1	1.3	0.0	4.4	2.3	1.8
정 부 소 비	5.4	4.3	5.6	2.9	2.1	3.6
설 비 투 자	9.3	-1.0	-9.8	25.7	3.7	-1.8
건 설 투 자	1.4	-2.8	3.4	-3.7	-5.0	-1.5
재 고 증 감 ¹⁾	-0.2	0.6	-3.9	2.5	0.8	-0.1
재 화와서비스수출	12.6	6.6	-1.2	14.7	9.5	3.7
재 화와서비스수입	11.7	4.4	-8.0	17.3	6.5	2.3
농 립 어 업	4.0	5.6	3.2	-4.4	-2.0	-1.0
제 조 업	7.2	2.9	-1.5	14.7	7.2	2.2
전기가스및수도업	3.8	6.2	4.1	4.3	2.9	2.9
건 설 업	2.6	-2.5	1.8	-2.7	-4.6	-1.3
서 비 스 업 ²⁾	5.1	2.8	1.2	3.9	2.6	2.4
국내총소득(GDI)	4.8	-1.2	1.9	6.0	1.3	2.3

주: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현장 여론 조사
(KRI 리포터-통신원)

농촌지역 음주, 흡연 등 건강관리 실태

□ 농촌지역 음주, 흡연 등 건강관리 실태 설문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기간: 리포터 및 현지통신원, 2013. 1. 17 ~ 1. 23
- 조사방법 및 응답자: 온라인 설문조사, 3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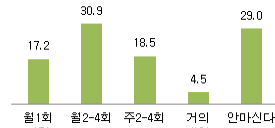
○ 조사결과 종합

- 음주와 흡연 및 건강관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과거 통계청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농촌지역 음주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인구는 2008년 조사결과보다 9.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량도 2010년 조사결과 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인구는 15.9%로 2010년 조사결과 보다 9.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운동 실태는 **운동을 거의 안한다는 응답이 40.7%**로 나타났고, **운동 시설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33.3%**에 달해 운동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식사조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안한다는 응답이 16.9%로 2003년 보다 23.7%p나 줄어드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은 아침식사 비율이 94.3%, 적정수면 87.6%, 정기건강검진 74.9%로 높았으나, **규칙적인 운동은 34.2%로 낮게** 나타났다.

○ 조사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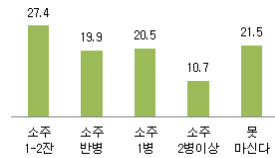
<음주 행태>

- 조사 응답자의 71%가 술을 마신다고 응답
 - 18.5%는 2~3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며, 매일 마신다는 응답도 4.5%로 나타남.
 - 술을 안 마신다는 응답도 29.0%로 나타남.
 - * 음주인구는 2008 통계청 조사보다 9.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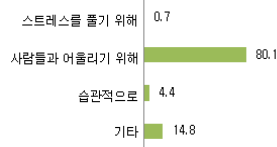
<주량>

- 주량은 소주 반병 이하가 절반 가까운 47.3%, 1병 20.5%, 2병 이상 10.7%로 나타남.
- 2010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주량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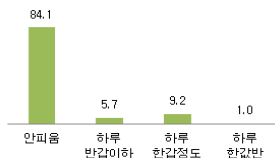
<술 마시는 이유>

- 음주를 하는 이유로는 교제를 위해서 마신다는 응답이 80.1%,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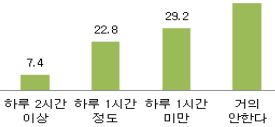
<흡연 실태>

-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응답이 84.1%로 흡연 인구는 15.9%로 나타남.
- 2010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농촌지역 흡연인구가 9.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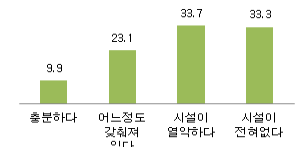
<운동 시간>

-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 30.2%
- 거의 운동을 안 한다는 응답이 40.7%로 나타남.



<운동 여건(시설)>

-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거나 충분하다는 응답 33.0%
- 시설이 열악하거나(33.7%), 아예 없는 경우(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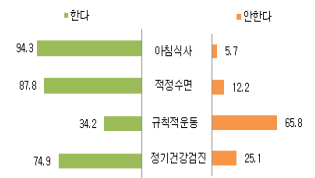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식사조절(34.8%)과 운동(24.6%)을 하고 있으며, 음주와 흡연 등을 절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남.
- * 2003 통계청 조사 결과(40.6%) 보다 크게 감소



<건강 관련한 생활 습관>

- 아침식사는 94.3%가 먹는다고 응답했고, 적정수면은 87.8%, 규칙적 운동은 34.2%
- 10명 중 4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안한다고 응답
- * 2010년 통계청 조사결과 보다 긍정적인 수치(한다)가 모두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확인



□ 농촌지역 음주, 흡연 등 건강관리 실태

○ 흡연 인구는 감소 추세, 음주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

- 정부의 금연대책이 효과를 거두어 점차 흡연자가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음주는 여전하고 특히 여성들의 음주가 많이 늘어나 오히려 농촌지역 음주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보임.<경남 거제, 옥을석>
- 농촌에도 금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임. 오래 전부터 담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약 70%정도 구매비율이 줄었음. 전국적인 금연운동과 더불어 주변에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흡연자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음주 인구는 아직 많은 편임. 바닷가 지역이라서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도 마을에 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 염려됨.<경남 창원, 오인하>

○ 농촌주민 건강관리 중요성 인식해 흡연, 음주 자제 분위기

- 모임장소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회관, 경로당 안에서도 서로 서로 자제하고 있는 편임.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과음하는 주민도 줄고 있음.<경남 김해, 김병철>
- 우리 마을의 흡연 현황은 마을인구 74명 중 9명에 불과함. 음주도 예전에 비해 1/10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임.<전남 화순, 나중주>
- 건강을 위해 과음을 하지 않는 편이며, 노인층일수록 금연을 하는 편임. 몸에 이상이 나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약물 또는 물리치료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음.<전남 순천, 김종근>

○ 마을회관에 혈압측정기 등 의료장비 보급 필요

- 요즘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 누구 한 명 안 아픈 사람이 없는 실정임. 농촌주민들을 위한 간단한 혈압 측정기거나 당수치 검사기구 등을 마을 회관에 설치해 농촌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요망함.<경남 창원, 오인하>
-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약값, 진료(침술)가 무료이며, 병원비가 1,500원 정도이다 보니 하루에 2~3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 치료를 받는 등 오히려 과잉된 건강관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노인의 병원비가 점차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이 병원비나 약값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니 제도를 개선해 하루 한군데 병원만 다니게끔 적절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전남 화순, 나중주>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경북지역 폭설피해 하우스 농가 피해보상 요구

- 고령·성주지역에 폭설로 인한 하우스 피해 농가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음. 면에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보상기준의 시설 규격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음. 피해 농업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규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역실정에 맞게 피해보상 기준 규격을 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경북 고령, 최태봉>

○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 유치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우리 마을은 100호가 넘게 거주하고 학교시설도 좋은데 결혼 적령기 처녀총각은 한두 명 뿐임. 아무리 농촌이라지만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농기계가 있어 일이 힘들지도 않고 주택도 어느 정도 현대화 되었는데도 젊은이들은 여전히 농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오고 싶은 농촌, 떠나기 싫은 농촌이 되도록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충남 부여, 최영호>

○ 지역농협조합장 선거 중앙선관위 위탁관리로 비용 증가

- 지역농협조합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위탁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위탁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지역농협에서 부담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1,000명 쯤 되는 우리지역 작은 농협에서 입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비용으로 2,500만 원이 지拂되었음. 입후보를 하는 사람은 선거비용이 큰 만큼 공탁금제도가 있어야 함.<대구 달성, 박동준>

○ 지역농협 조합원의 차등 환원제도가 필요

- 지역농협을 활성화해야 중앙농협도 활성화될 텐데 지역농협은 조합원 구조 조정이 핵심문제임. 농협 창설자라고 농협을 이용하지 않고도 환원사업의 수익금을 똑같이 배분받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조합원 환원 사업에는 이용배당에 준해서 차등 환원되어야 하고, 조합원들을 한시적 기한을 두고 몇 년 동안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면 탈퇴를 시켜야 함. 차등 환원제도만 시행해도 지역농협 자본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촌 노임 및 농기계 값 결정 기준마련 필요

- 농촌지역에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술자 노임이 하루에 15만 원 가까이 형성되는 바람에 영농 노임이 제멋대로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저 지역의 농기계 값이 차이가 나고 있음. 인건비와 농기계 값은 해당지역 농업단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준을 마련해 제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됨.<경남 고성, 정동연>

○ 농업인 영농교육…기술교육에만 치중, 경제교육 필요

-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에서 '새해농업인실용 교육'이라는 색다른

교육을 실시함. 영농교육은 농한기에 연초에 실시하여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함. 하지만 농한기에 너무 집중되어서 모두 다 배우고 싶는데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또 기술교육에만 치중해 경제와 경영측면의 마인드 함양이 부족함. 수요와 공급 등 경제적인 측면의 교육도 해주기 바람.<경기 안성, 임충빈>

○ 수입산 쇠고기 공급량 조절, 초지조성 정책 도입을

-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너무 많이 풀어 한우가 대략 40%, 수입산이 60% 비중으로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우 값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 생각됨. 수입산 쇠고기의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 가격에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80년대 중반 소값 파동 때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 초지를 조성 하겠다던 축산정책이 실종되었음. 드넓은 초지에서 풀을 먹고 자라야할 소가 이제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사료로 키워지고 있어 생산비와 품질 저하로 한우농가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임. 초지 조성 정책을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임.<경북 군위, 윤석구>

○ 마을회관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농촌마을 곳곳에 마을회관이 있어 농한기에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음.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에 가려면 군청 소재지까지 가야 해서 여러 모로 불편하니 회관에 부대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또한 정보이용방을 만들어 농사정보를 보다 빨리 접할 수 있게 하고, 농기계 창고나 수리센터를 신축하는 등 마을회관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충남 부여, 최영호>

○ 미등록 정화조가 농촌지역 환경오염 발생시켜

- 농촌에 미등록된 정화조 설치농가가 많은데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청소 안내통보가 없어 그대로 마을 하수구를 통해 강으로 흘러 보내지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에서는 미등록 정화조 설치 농가를 철저히 조사해 1년에 1회씩 청소를 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전남 순천, 김종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월 21일~2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직불제 확충·농어촌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농식품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개선과 직접지불제 확충, 맞춤형 농어촌 복지 추진 등 10개 과제**와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추진 보고…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개선, 직불제 확충,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IT·BT를 활용한 농림수산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농어업 외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산업 선진화,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 과제 선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관련…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개편,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경쟁력 있는 수산물리체계 구축, 축산분야 선진유통체계 구축,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불량 농식품 사전차단과 농식품 통합안전 정보망 구축 등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먹을거리 관리와 관련된 공약 이행계획**도 보고. 특히 **농어업 재해대책, 재해보험 보완 강조**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21)

□ 대설 피해 농가 133억 원 긴급 지원

- 농식품부, 1.15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지난해 12월 대설 피해를 입은 강원, 충·남북, 전북 지역의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신속한 지원** 결정. ▲**재해복구비**…인삼시설 99억 8,800만 원(보조 40억4,000만 원+융자 59억 4,800만 원), 비닐하우스 19억 5,900만 원(보조 7억 9,700만 원+융자 11억 6,200만 원), 생계 지원비(보조) 300만 원 등, 피해 농가 중 농가가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2억 9,300만 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도 감면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1)

□ 귀농 창업 대상자 대폭 확대

- **올해부터 귀농 창업 대상자 대폭 확대.** 농식품부,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기존 '농어촌에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포함. 한편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 사업에 모두 700억 원 지원. 농지구입이나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지원은 2억 원 한도 내,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리는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1)

□ 닭고기 수입 지속 증가

-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검역기준)된 닭고기는 7,684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 닭고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국가별... 미국 3,455톤 > 브라질 3,729톤 > 덴마크 454톤 > 헝가리 24톤 > 칠레 22톤 등, ▲부위별...다리 6,974톤 > 가슴 208톤 > 날개 478톤 > 전체육 24톤 순. ▲수입물량...수입된 냉동 닭고기 물량은 (2010년) 9만8,912톤 → (2011년) 10만8,595톤으로 **9.8% 증가.** 수입 닭고기 단가는 국내산과 비교해 70% 수준에 불과해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수입육 시장 확대, 급식 등 대량 급식처의 수입 닭고기 요구와 닭강정 시장 확대 등이 주 원인으로 파악(양계협회 관계자)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1)

□ 식품이력추적제 본격 시행 예고 '기대반, 우려반'

- 식품의약품안전청, 1.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위해·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식품이력추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본격적인 추진 예고. 이에 대해 **원료 사용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이 제도를 식품안전업무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규제 위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특히 2008년 이력추적제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극히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화까지 강화될 가능성 존재.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원료 사용 유무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 가공식품의 원료가 어디서 무엇을 생산한 것을 사용했느냐 에서부터 이력제 기록, 관리가 시작, 반면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이력추적제가 도입된 지 5년 가까이 됐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에 회의적,** 식품 진흥 업무를 맡는 농식품부가 아닌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이 이 제도를 추진해 단순히 규제 위주로만 제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식품이력추적을 통하면 국내산 농산물 사용 유도 정책까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것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해 기록, 관리하는 제도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21)

□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삼가세요

- 지난해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규모 크게 증가.** 특히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면세유를 배정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농관원, 2012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에서 **5,442건 적발(전년대비 20% 가량 증가).** 지난해 적발된 부정유통은 폐기 또는 고장 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은 사례가 5,10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농업 이외의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세유를 양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339건. **적발되면 추징금 부과되며 2년간 면세유 배정 대상에서 제외, 폐농기계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자료 : 농민신문(2013.1.21)

□ 스마트폰으로 농식품 인증정보 확인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친환경·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농산물, 유기농·전통식품 등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1월 24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를 통해 친환경·GAP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생산자단체 및 인증품목 등을 확인, 유기농·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인증제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농관원에서 선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에 대한 소개와 위치정보 및 친환경농업과 GAP농업을 실천하는 스타팜 농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 스마트폰 사용자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농식품안심이'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 아이폰 사용자는 앱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농식품안심이 초기화면



▲ 우수음식점조회 화면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1.23)

연구 지원 정보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경영체 조사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경영체 4년 연속 증가세」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시·도를 통해 '11. 12. 1 ~ '12.11.30일까지 연간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과 영업이익 2억 원 이상 법인 조사
 - ※ 연간 농업소득: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생산관련 소득) - 경영비
- 개인과 법인의 경영규모, 품목, 소득(조수입, 경영비) 등 파악
 - ※ 경영장부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집 소득률 적용
- '12년 역대 농업경영체는 총 **17,291개**로 '11년 대비(16,722명) **3.3%(562명) 증가**
 - 농업인(2.8% 증가): ('11) 15,959명 → ('12) 16,401
 - 법 인(16.7% 증가): ('11) 763개 → ('12) 890
- 전체 고소득 역대 농업경영체의 증가 요인
 - **[생산측면]** 농산물가공·유통시설의 첨단화, 농업생산자 간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경영,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수요측면]**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농촌체험 등 생산-가공-관광(서비스)를 연계한 **6차 산업의 증가**

□ 세부내용

- **[지역별]** 경북에 **6,242명(37%)**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전남 2,855명(17%), 경기 2,092명(13%) 순
 - 역대 농업경영체 증가 지역: 경기(1,543명) > 경남(537) > 전남(102)
 - 역대 농업경영체 감소 지역: 경북(1,257명) > 강원(183) > 충남(98)
- **[중사부류별]** 축산이 **7,035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3,020명(17%), 채소 2,747명(16%), 벼 1,896명(11%) 순

- 채소의 경우 '11년 대비 32%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축산의 경우 10%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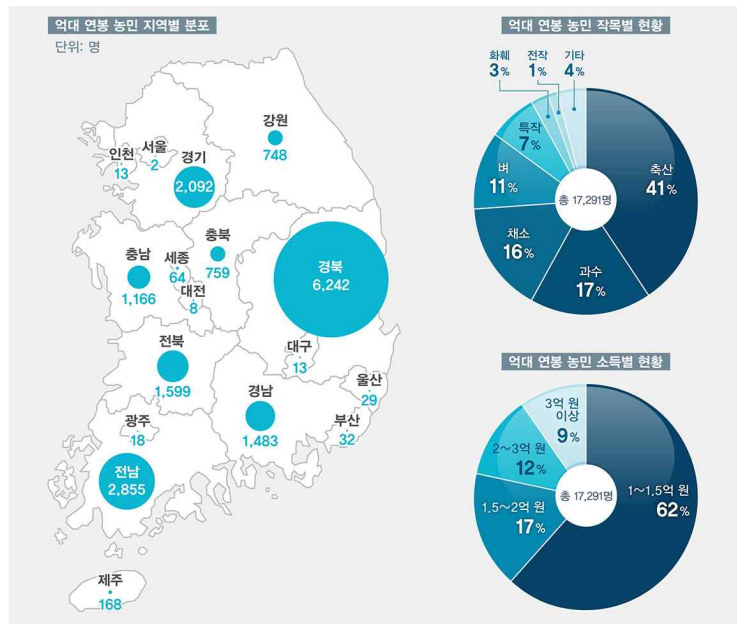
○ [연령대별] 40~50대가 전체 고소득 농가 중 70%를 차지

※ 50대 8,638명(50%), 40대 3,529명(20%)

○ [소득구간별] 1억 원 ~ 1.5억 원 미만 구간의 경영체가 전체 고소득 농가 중 62%를 차지

※ 1억~1.5억 원 미만 (10,689명, 62%), 1.5억~2억 원 (2,903명, 17%), 2억 원 ~ 3억 원 (2,059명, 12%), 3억 원 이상 (1,640명, 9%)

<2012년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조사 결과>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